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(황정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162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9. 23.

발 의 자 : 황정아 · 강준현 · 윤건영
박홍배 · 김문수 · 송재봉
오기형 · 이연희 · 허성무
전진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

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.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만을 처벌하고, 단순 소지·구입·저장 및 시청한 자는 처벌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.

디지털성범죄 정보는 복제가 용이하고 확산의 속도가 빨라 그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 회복에 수년이 걸림에도 현행법상의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.

이에 딥페이크 범죄의 구성요건에 반포할 목적을 삭제하고, 단순 소지·구입·저장·시청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5년 이하 징역,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(안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).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의2제1항 중 “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”를 “사람의”로, “5년”을 “7년”으로, “5천만원”을 “7천만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5년”을 “7년”으로, “5천만원”을 “7천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중전의 제4항) 중 “제3항까지의”를 “제4항까지의”로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등과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을 소지·구입
·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
금에 처한다.

제14조의3제1항 중 “1년”을 “3년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3년”을 “5년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
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
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
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③ (생 략)

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
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
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
가중한다.

제14조의3(촬영물 등을 이용한
협박·강요) ① 성적 욕망 또
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
촬영물 또는 복제물(복제물의
복제물을 포함한다)을 이용하
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
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
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
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
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③ (생 략)

-----7년-----
-----7천만원-----
-----.

③ 제1항에 따른 영상물등과
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을 소지
· 구입 · 저장 또는 시청한 자
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
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

⑤ -----제4항
까지의-----
-----.

제14조의3(촬영물 등을 이용한
협박·강요) ① -----

-----3년-----
-----.

② -----

5년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